

한국불교학회 법인화 추진



“삼보님께 예배드리고, 한국불교학회 회원들의 한결같은 바람인 ‘사단법인’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호소하는 바입니다.”

한국불교학회(회장 이평래·사진) 홈페이지(www.hanbulhak.or.kr)에 지난 12월 15일자로 이와 같은 ‘권선문’이 올라왔다. 한국불교학회 사단법인화에 필요한 기금 마련에 후원을 당부하는 내용이다. 1973년 창립된 한국불교학회는 회원 수 500여명에 달하는 국내 대표적인 불교학회다.

◆**순탄치 않은 법인화 과정**

권선문에 따르면 한국불교학회의 보유 기금은 3500만원. 설립에 필요한 기금 5000만원에 1500만원이 부족하다. 3500만원은 한국불교학회가 법인화를 염두에 두고 2003년부터 모은 ‘거금’이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 1월 다소 변화가 생겼다. 더 이상 지체해선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한 임원이 빚을 내 임시로 자금을 융통한 것. 덕분에 한국불교학회는 5000

지난해 3월 착수... 자금문제로 우여곡절 기금 5000만원 조성해 문광부에 신청 불자 후원 호소... 이달중 결론 날듯

만원을 채워 문화관광부에 법인 설립 신청서류를 접수할 수 있었다.

여기에 오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애초에 법인 설립을 위해 서류를 접수한 것이 지난해 3월이니 거의 1년여를 끌어온 셈이다.

처음에 서류를 접수한 곳은 강남교육청이었다. 하지만 몇 달 후 ‘불교단체이므로 교육부가 아닌 문광부에 등록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서류가 반려돼 왔다.

문광부 또한 설립기금이 5억은 돼야 한다며 서류를 반려했다. 문광부에 학술단체의 특성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 다음에야 설립기금 5000만원이면 된다는 유권 해석을 받아낼 수 있었다. 법인화 여부는 늦어도 2월 중에 판가를 날 전망이다.

◆**다양한 사업 전개 가능**

이처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한국불교학회가 법인화 의지를 꺾지 않은 이유는,

법인 형태가 여러모로 학회 발전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법인이 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학회의 지위다. 학회가 법적인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가 발주사업에 입찰하려면 ‘법인’이라는 자격요건이 필수이기 때문에, 법인 설립은 국가사업에 필수적이다.

법인이 되면 후원금 모금도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아무리 많은 후원을 한 후원자라 해도 학회 측에서 아무런 보답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법인은 후원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공제 혜택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기업 또는 개인 후원금을 유치하기 쉬워지리라 기대 한국불교학회 측의 기대다. 후원금 모금과 집행에 대한 투명한 관리도 가능해져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또 법인화는 한국불교학회 조직 확대와 다양한 사업 전개도 가능케 할 전망이다. 법인은 산하에 단체를 둘 수 있는데, 전국에 지회를 둔다거나 교양불교대학을 설립해서 운영하게 되면 불교대중화에 큰 보탬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불교계에 잔잔한 반향**

이런 이유로 한국불교학회의 법인화 추진은 불교계의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적게는 5만원, 많게는 수백만 원에 이르는 후원금이 들어오고 있다.

어떤 불자는 익명을 전제로 1000만원을 내놓기도 했다. 동국대 선학과 교수 해원 스님은 주석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소림사 방 하나를 사무실로 제공키로 했고, 동국대 경주캠퍼스와 원광대는 각각 성본 스님과 양은용 교수의 연구실을 지회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회 사무실과 지회 사무실은 법인 설립의 기본 요건이다.

한국불교학회장 이평래 총남대 교수는 “불자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법인화를 추진할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하며, “학회 법인화는 한국 불교 발전을 위한 미래 지향적인 노력인 만큼 불자들이 관심 갖고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02)2260-3140

박익순 기자 ufo@buddhania.com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39>

소리

서암 스님은 현대에 보기 드물게, 자신의 선 수행을 모범적으로 열반 시가지 보여주셨던 분이다. 자신이 조계종 8대 종정이셨음에도 스스로 세속적인 문중을 만드는 데 관심이 없음을 만큼, 수행의 모범을 보여 주셨다.

작년 서암 스님의 제자들은 <소리없는 소리>라는 책을 펴냈다. 서암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스님의 가르침의 자취를 실감 나게 정리한 매우 품격이 높은 책이다.

그 책의 제목을 왜 ‘소리 없는 소리’라고 했을까 생각해본다. 아마 <반야심경>에 있는 말, ‘무색성향미촉법’, 즉 우리가 외부세계를 인식하는 대상이나, 감각기관에 변하지 않는 실체가 없다는 말에서 따 온 것이 아닐까. 서암

다. 두개골이라는 뼈의 소리 전달 능력이 공기보다도 더 우수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공기는 사실 공기분자가 수 없이 돌아다니는 공간이다. 19세기 말을 살았던 볼츠만은 이 공기분자의 운동이 압력, 온도를 결정한다는 이론을 세운 첫 과학자다. 당시 이러한 이론에 대해서 이해했거나, 받아들인 사람은 별로 없다.

우리가 향을 피울 때, 연기는 아름다운 자취를 만들면서 공기를 퍼져나간다. 이 움직임은 향의 큰 입자를 공기 중의 작은 입자가 무수히 때리기 때문에 생기는 운동이다. 작은 입자가 향 입자를 때리는 행동은 매우 임의적이다. 이러한 행동을 예측한 사람은 20세기 가장 위대한 과학자로 꼽히는 아인슈

우리는 외부세계의 끊임없는 진동을 공기라는 매질을 통해 듣고 있을 뿐

스님의 가르침이 의미를 가지더라도, 스님의 목소리 자체에는 집착할 만한 것이 없다는 체와 용에 대한 불교의 양면성을 만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한다.

‘소리’를 통해서 사람은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와 만나기도 하고, 아파트 위층에서 이웃이 만드는 소음과 만나기도 한다. 소리는 공기와 같은 매질을 통해서 전달된다. 매질이 딱딱할수록 소리가 손실이 없이 전달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귀를 책상에 대고, 책상을 두드릴 때 들리는 소리는 공기를 통해서 들리는 소리보다 훨씬 더 생동감이 있다. 책상이라는 매질이 공기보다는 더 소리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물질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소리를 녹음으로 듣는 것과 스스로 인식하는 소리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자신의 소리를 두개골을 통해서 듣기 때문이

타인이다. 사실 향이 공기 중을 운동한다고 해도 좋고, 짙 찬 공기분자 중을 향 연기가 비집고 움직인다고 해도 좋다. 마치 목욕탕 물속에 물방울이 움직이는 것과 같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공기도 이와 같이 오묘한 과학이 있다. 이러한 공기라는 매질을 통해서 우리는 외부 세계의 끊임없는 진동을 소리라는 이름으로 듣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찰을 한다면,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에 깊은 이치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공기라는 매질을 통해서 전해지는 우주 만상의 진동에 반응하는 ‘나’라는 진화의 결과를 느낄 수도 있고, 파도의 소리와 반응하는 자신의 인식에서 ‘불성’을 발견한 관세음보살의 위대한 수행을 관념이나 나눌 수 있을지 모른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태고종 정체성 확립하려면 ...”

하춘생씨 동국대 불교대학원 석사논문서

태고종립 동방불교대학 하춘생(사진) 교학처장이 동국대 불교대학원 석사논문서를 통해 태고종의 정체성 확립과 종단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 정체성 연구를 ‘태고종의 창립과 그 정체성 연구’ 제목의 논문에서 하춘생은 태고종의 사상적 정체성인 보살불교사상이 태고보우의 원용불교 사

상과 다르지 않음을 밝히는 한편, 태고종이 보살승단으로서 위상을 확립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하 춘생은 “태고종은 광복 이후 분규과정에서 자리일변도(自利-邊倒)의 비구승단으로서는 만족할 수 없으며 시대가 이를 받아들일 수도 없음을 주장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기본사명으로 하는 복지

사회 건설을 종단의 기본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종단의 목표설정 등에 대해 하 춘생은 “태고종 보우의 선교불이(禪敎不二)이 사무에(理事無碍)의 원용중풍에서 연원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태고종이 이러한 정체성은 정

작 태고종도들의 의식구조로서 확립되지 못했다는 것이 하씨의 지적이다.

정체성 확립을 위한 대안으로 하 춘생은 △태고선종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상설연구기관 설치 △중조어록에 전거한 수행강령 수립 △종조와 관련한 의식의례 전형 제시 △선교교육 후속도 제도 정착 △종도재교육과 이를 위한 상설연구기관 운용 △종단 기능인력의 자기정체성 회복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하 춘생은 “종단의 정체성은 종조를 명분상 모시는 것만으로 확립되지 않는다”며 “종지를 현실 속에 여법하게 구현하려는 노력을 경주할 때 정체성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살예방 전문가 과정 한림대 사이버교육 개설

한림대 생사학연구소(소장 오진탁)와 ‘밝은 죽음을 준비하는 포럼’은 ‘자살예방 전문가 과정’을 사이버 교육과정을 오는 3월 20일 개강한다.

1년 과정(2학기)으로 개설되는 자살예

방 전문가 과정은 ‘인간의 삶과 죽음’ 사회병리현상으로서 자살·‘죽음, 끝이 아니다’ 자살사례 유형별 분석’ 등의 주제가 포함된다. 수업은 각 학기 15주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학기말에는 출석수업(1일)이 병행된다.

생사학연구소 측은 “현직교사, 종교인, 군관계자, 의료인, 심리상담가 등을 대상으로 죽음과 자살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

육시킴으로써 자살예방 전문가를 양성할 것”이라고 강좌 개설의 의의를 밝혔다.

수강 인원은 선착순 60명이며, 수업료는 1학기 15만원, 1년 28만원이다. (03)3248-3091


국립중앙박물관 개관 100일

지난해 10월 28일 개관한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근무)이 2월 4일로 개관 100일

을 맞았다.

박물관은 1월 31일 현재 총 176만명이 다녀갔으며, 100일째 되는 4일에는 180만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고 3일 밝혔다.

한편 박물관은 개관 100일을 기념해 세로 선보이는 전시관퀴즈(활동지) 3종(삼국의 꾸미개, 도자기, 불교조각 등)을 박물관을 찾은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www.njutcm.edu.cn

2006학년도 일반전형 모집

세계에서 제일 큰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중국 남경 한의과대학 학생모집

2006년 의료시장 개방 / 한국 개원 가능

1. 모집요강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20명 (내신 80점 이상)	· 건강진단서 1통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 (영문) · 입학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석 사 과 정	3년	5명 (평점 3.5이상)	
박 사 과 정	3년	2명	

2. 학교 소개

- 세계 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특징**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한국식사 제공
- 군입대 연기가능
- 현지 생활 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3.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주지스님 추천자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건강진단서)
- 접수마감 : 2006년 2월 17일까지

5. 문의처

- 주 소 : 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 전 화 : 25-86322539 / 팩스 : 25-86798168
- 한국상담 안내처 : 조계종 삼화불교대
-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511-2026~7, 1080 / 팩스 : 02)511-2028
-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 남경중의약대학 자매대학

원광대 한의대학
대전대 한의대학
삼화불교대학 분교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

한국총장 손혜인